

비상경제장관회의

24-5-3

(공개)

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[웹 콘텐츠 창작 · 웨딩뷰티 서비스]

2024. 3. 13.

관계부처합동

순 서

I . 추진배경	1
II . 기본방향	4
III .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	5
1. 현황 및 문제점	5
2. 정책과제	6
IV . 웨딩 · 뷰티 서비스	17
1. 현황 및 문제점	17
2. 정책과제	18
V . 주요과제 추진일정	25

I. 추진배경

-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% 이상을 차지*하고 있으며,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 고용·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

* 연령대별 서비스 취업자 비중(% '23) : (전체) 71.3 (15~29세) 80.6 (30~39세) 73.8

- 청년세대 일자리에서 서비스 분야 비중이 확대*되고 있고, 청년들의 선호 직업에서도 서비스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**

* 15~39세 취업자 중 서비스 비중(% 통계청) : ('14) 74.1 → ('19) 75.5 → ('23) 76.7

** 초·중·고 각 상위 20개 선호 직업 중 주요 서비스 직종('23, 교육부)

: 크리에이터, 만화웹툰작가, 뷰타시각디자이너, 프로그래머, 운동선수, 광고 전문가 등

- 여가·외식·여행 등과 연관된 업종의 수요*가 상대적으로 높고, 가치·개성 중시 성향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**도 등장

* 1인가구 월 지출천원, 30대이하/40대/50대 '22 : (오락문화) 165/138/95 (음식숙박) 398/342/259

** (예) 친환경 포장재 이용한 유통서비스, 개인 취향 맞춤형 제작서비스(Customizing) 등

- 그러나,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업종의 청년 취업 증가율 미미 및 주요 소비 품목의 만족도 저하 등 문제점 노정

- 청년 취업자 중 유망·선호 서비스 업종 취업자 비중은 정체*, 청년 창업의 경우에도 他연령대 대비 폐업률이 높은 수준**

* 15~29세 취업자 업종별 비중('13~'23, 통계청, %) : (스포츠) 2.6→2.3 (정보통신업) 4.4→6.0

** 서비스업 창·폐업률('20, 중소벤처연, %) : (29세이하) 52.9/18.2 (30대) 27.6/12.0 (전체) 18.5/10.1

- 문화생활, 여행, 온라인 구독 서비스 등 청년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소비 품목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측면*

* 소비 만족도('21, 점) : (전체) 71.4 (문화관람) 67.7 (여행) 68.3 (온라인 구독오락) 70.4

소비자문제 경험률(전체/20대, % '21) : (문화관람) 4.2/6.1 (여행) 5.7/5.9 (온라인 구독오락) 4.0/6.6

☞ **청년 고용 증가와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한 청년친화 서비스 업종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 비즈니스 창출 지원**

-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 세대과 함께 **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, 웨딩·뷰티 서비스** 관련 발전방안 마련

[참고 1] 청년세대 의의 및 특징

□ (의의) 법·제도마다 범위가 상이하며, 폭넓게 39세 이하를 지칭

〈국내 법·제도상 청년세대 범위 정의〉

	~14세	15세	19세	29세	34세	39세
청년기본법						
청년고용촉진특별법						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						
중소기업창업지원법						
전통시장법						

□ (특징) 인구 감소 추세 속 개인화, 여가 중시 등 인식 변화 뚜렷

* 「청년기본법」 기준에 따라 19~34세 연령대를 중심으로 분석

○ (인구구조) 청년(19~34세) 비중은 '22년 20.5% → '50년 11%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, 1인 청년 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*

* 청년인구 중 1인가구 비중(% , 통계청) : ('00) 6.6 → ('10) 12.6 → ('20) 20.1

○ (결혼생활) 결혼비용은 계속 상승하여 '23년 3.3억 수준*,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**

* 결혼품목별 소요비용(백만원, D社) : (주택) 280 (혼수) 16 (예식홀) 11 (예단) 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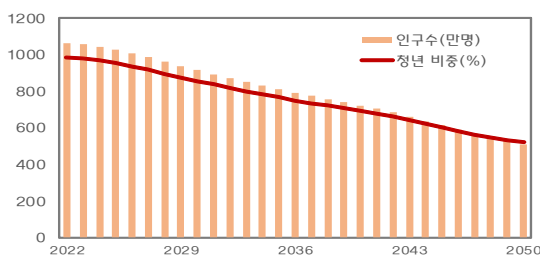
** 결혼하지 않는 이유(% '22) : (결혼자금 부족) 33.7 (불필요) 17.3 (출산양육 부담) 11.0

○ (진로희망) 직업 선택시 수입·안정성·적성 등을 주로 고려, 크리에이터, 웹툰작가, 뷰티·시각디자이너, 운동선수 등 선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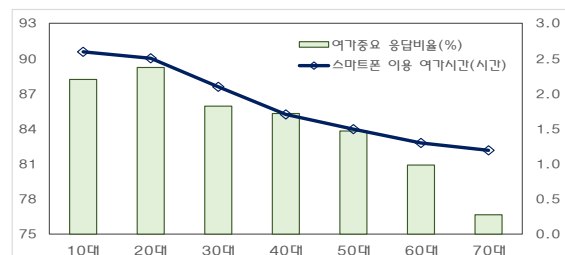
○ (여가생활) 여가가 삶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他연령대보다 높고,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 여가활동이 중심

* 20대 1순위 여가활동(% '22) : (컨텐츠 시청) 16.4 (1인 미디어·SNS) 13.2 (게임) 12.0 (헬스) 5.0

19~34세 인구 및 비중 전망('22~'50)



여가 중요도 및 여가시간 스마트폰 활용률



[참고 2] 대상 서비스 업종 선정

□ (선정기준) 청년이 ❶일하고 싶고 ❷일상생활에 밀접한 ❸유망 업종

- ❶ (고용 선호) 청년들의 취업·창업 비중이 높거나 선호하는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좋은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
- ❷ (생활 밀접) 청년 관심도가 높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여 청년들의 소비 만족도 향상
- ❸ (발전 가능성) 사회구조 변화 및 미래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이 가능한 유망 업종 분야 선정

□ (선정결과) 선정기준에 맞는 후보군 내에서 대상 업종 선정

- (업종 후보군)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·2030 자문단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 후보군* 도출

* 웹 콘텐츠 창작서비스(웹툰·웹소설, 크리에이터 등), 결혼 서비스, 뷰티 서비스, 펫(반려동물) 서비스, 건강관리 서비스 등

- (대상 업종) 웹 콘텐츠 창작(웹툰, 크리에이터 등), 웨딩·뷰티 선정
 - (웹 콘텐츠 창작) 디지털에 친숙한 청년세대의 종사율*과 이용률**이 높고, K-웹툰 인기 확대 등으로 빠르게 성장

* 크리에이터 산업 연령별 종사자(% '22) : (30대이하) 64.9 (40대) 27.0 (50대 이상) 8.1

** 웹툰 주1회 이상 이용률(% '23) : (10대) 71.6 (20대) 70.6 (30대) 67.4 (40대) 58.9 (50대) 46.9

- (웨딩·뷰티) 청년세대 창업 증가* 및 소비비중**이 높은 추세로, 에코웨딩, 남성·비건뷰티 등 新서비스 창출도 활발

* 피부미용 39세이하 대표자 사업장(개) : ('18) 7,520 → ('20) 9,425 → ('22) 13,178

** 혼인 연령별 구성비('22, 남성, %) : (20대) 21.7 (30대) 54.6 (40대) 13.2 (50대) 6.5

※ 청년층 의견수렴, 업계 현장애로 청취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 발굴·육성 정책 지속 추진 계획

II. 기본방향

- ◇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, 웨딩·뷰티 서비스 산업의 성장·발전을 위하여
 ①취·창업 활성화, ②소비자 만족 제고, ③성장 기반 마련 등에 초점
- 청년보좌역, 2030 자문단 등이 발전방안 마련에 함께 참여하여
 총 20개의 청년 제안 과제 반영

정책 방향	취·창업 활성화	소비자 만족 제고	성장 기반 마련
웹 콘텐츠 창작	계약 공정성 확립	시장 왜곡행위 제재	동반산업 성장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웹툰 표준계약서 고도화 · 크리에이터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악성 댓글 등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 · 가짜뉴스 유통 근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번역 질 제고 지원 · XR 등 연관기술 개발 지원
	창작자 보호·지원	가격 규제 개선	수출 활성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신건강 관리 지원 · 창작자 경력개발 지원 ·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웹툰·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 · 수출 유망시장 조사
웨딩 뷰티	교육훈련 강화	공정거래 확립	법·제도 정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뷰티 창업교육 확대 · 뷰티 창업정보 제공 강화 · 웨딩분야 자격체계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결혼 가격정보 공개 강화 ·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결혼 진흥·발전 법률 제정 · 결혼 정기 실태조사 실시 · 뷰티 통계 세분화
	창업부담 완화	공공예식 활성화	방한 관광 확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유미용실 제도화 · 피부·네일 간이과세 적용 · 웨딩 1인 창조기업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술관·박물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 · 공공예식장 모델 다양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K-뷰티 체험·홍보관 확충 ·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개최

Ⅲ.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(현황) 웹 콘텐츠 창작*은 청년 취업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

* 웹툰·웹소설, 크리에이터 미디어(유튜브·SNS 등에 업로드되는 개인 제작 콘텐츠) 등

- 웹 콘텐츠 창작 종사자가 주로 30대 이하*이며, 청년들의 희망 직업에서도 크리에이터, 웹툰 작가 등이 상위권을 차지

* 30대 이하 종사자 비중(% , '22) : (웹툰작가) 81.3 (크리에이터 미디어) 64.9

- 청년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*하고, K-콘텐츠 인기 확산 등으로 성장이 기대되며, 높은 고용·생산 유발효과**를 보유

* 웹툰 주1회 이상 이용률(% '23) : (10대) 71.6 (20대) 70.6 (30대) 67.4 (40대) 58.9 (50대) 46.9

** 콘텐츠 수출 유발효과('22, 수은) : 수출 1억달러당 생산 5.1억달러, 고용 2,982명 증가

□ (문제점)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규모*에 비해, 창작자·소비자가 만족하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은 미흡

* 웹툰시장 규모(억원) : ('17) 3,799 → (20) 10,538 → ('22) 18,290

크리에이터 미디어 매출액·종사자(억원, 명) : ('20) 4,924/4,232 → ('22) 41,254/35,375

- (취·창업 여건)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*이 만연하고, 청년 창작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 강화 필요

* 웹툰 불공정 계약('23, %) : (플랫폼 등 유리한 계약) 30.5 (정산내역 불충분) 24.2 (계약수정 거부) 23.8

- (소비 만족도) 악성댓글·가짜뉴스 등 소비생태계 왜곡 행위가 빈번*하고, 웹 콘텐츠 특성에 맞는 가격체계 마련 요구 확대

* 유튜브의 가짜뉴스에 대해 '심각한 문제' 응답한 비율이 98.1%('21, 언론진흥재단)

- (제도적 기반) 번역, 가상현실(VR)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*하고, 영세 창작자는 유료 저작권 확보 등 곤란

* 웹툰 해외진출시 필요사항(% , '23) : (번역지원) 53.9 (네트워크) 46.7 (해외정보) 41.8

◇ 계약 공정성 확립 및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**창작자 보호·육성 강화**

□ **청년 제언** 웹툰 표준계약서 고도화(문체부)

- **(현황)** '15년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으나, 업계 관행과의 괴리·구체적 수익배분 조항 미비 등으로 현장 활용도 감소 추세*
 - * 웹툰 표준계약서 양식 미사용 작가 비율(%) : ('21) 25.0 → ('22) 46.7 → ('23) 51.3
- **(정책과제)**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웹툰 표준계약서 제·개정
 - 웹툰 표준계약서에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*하고('24.4월)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 작성·배포('24.3분기)
 - *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, 구체적 수익 배분, 웹툰 매출 정보 공개(총 판매량, 유료 판매비중 등), 창작자 휴재권(예 : 50회 연재 후 2회 휴식) 보장 등
 - 매년 웹툰 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도 점검

□ **청년 제언** 웹소설 표준계약서 마련·보급(문체부)

- **(현황)**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*하고 있으나, 웹툰과 달리 웹소설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부재한 상황
 - * 국내 웹소설 산업 규모(억원) : ('20) 6,400 → ('21) 10,390
 - 소수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심*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, 수익배분 등에서 창작자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우려
 - * 웹소설 플랫폼 매출액 비중('22, 추정치) : 대형(네이버·카카오) 81%, 중소형 19%
 - ** 작가와 플랫폼 간 계약 체결 시 52%의 작가가 플랫폼 및 에이전시가 제시한 계약 조건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다고 응답('22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, 문체부)
- **(정책과제)** 웹소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웹소설 표준계약서 마련·보급('24.6월)
 - * 웹툰 표준계약서 고도화 과제(수익 배분조항 마련, 휴재권 보장 등)도 함께 반영

☐ **청년 제언** 크리에이터 외주계약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(과기부)

- **(현황)**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제작 관련 일부 업무(영상편집 등) 외주계약 체결시 크리에이터의 대금 미지급, 부당한 대가산정* 등 불공정 계약행위가 빈번하게 발생**

* (예) 편집전 원본영상 2시간, 편집후 최종영상 30분일 경우 30분 기준으로 대가 산정

**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종사자의 37%가 250만원(최저임금 수준) 이하의 월급 수령 ('23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제작환경 조사, 과기부)

- **(정책과제)** 업무내용·근로시간·보상산정 기준 등을 규정한 크리에이터 외주계약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('24.3분기)

* (예) 계약 업무의 주요내용 및 범위, 필요기술 및 투입 노동에 준하는 보상 산정 등 규정

☐ **청년 제언** 웹툰·웹소설 작가 불공정행위 대응 지원 강화(고용부, 문체부)

- **(현황)** 웹툰·웹소설 작가들은 불공정 계약,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 경험률*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시급**

* 웹툰산업 불공정 계약행위 경험여부('23, %) : (직접 경험) 27.9 (간접경험) 39.6 (아니오) 32.5

** 웹툰작가 지원필요사항('23, %) : (계약·불공정행위 대응) 26.8 (창작공간 제공) 17.1 (지원사업 정보 공유) 10.1 (작가간 네트워크 지원) 9.1 (온라인 교육) 5.9

- **(정책과제)** 불공정행위 예방·대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

-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웹툰·웹소설 분야 창작·실무자 양성과정에 계약서 작성, 저작권 침해 대응 등 창작권리 보호 과목 추가*('24.上)

* 훈련과정 편성 시 "저작권 관리"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가이드 마련 (직종별 편성 가이드 개정)

-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관련 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 서비스(법률 등) 제공 확대('23년 20회 → '24년 30회)

-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상담된 질의·답변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'저작권위원회 챗봇' 상담기능 고도화

□ **청년 제안** 웹 콘텐츠 창작자의 콘텐츠 발굴조사 지원(문체부)

- **(현황)** 웹툰·웹소설, 개인 창작 영상 등의 소재·장르가 다양화·전문화됨에 따라, 콘텐츠 조사·연구를 위한 업계 지원수요 증가
 - 현재 창작자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강의*를 지원하고 있으나, 중견 작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신진 작가 대상 지원에 한계
- * 콘텐츠진흥원에서 1편 이상 상용화된 작품 보유 또는 공모전 수상 이력이 있는 작가 대상으로 테마별 특강 제공(이야기창작발전소)
- **(정책과제)** 웹 콘텐츠 창작자들의 콘텐츠 발굴 지원 추진('25년~)
 - 창작자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*의 전문가 DB를 구축하고, 창작자와 전문가간 매칭·자문 지원
- * (예) 신종마약, 외교통상, 바이러스, AI, 생명(해부학 등), 음반 제작 등
- 신진 웹툰·웹소설 작가, PD 등을 대상으로 창작소재 발굴 지원을 위해 전문가 테마별 특강 등 제공*
- * '이야기창작발전소' 지원대상 확대 등 검토

□ **청년 제안** 웹 콘텐츠 창작자의 진로전환 지원 프로그램 마련(고용부)

- **(현황)** 웹툰·웹소설 작가, 크리에이터 등은 낮은 입직연령, 높은 실패 가능성 등으로 진로전환 수요가 높은 분야
 - 웹 콘텐츠 창작경험을 활용하여 진로 전환, 경력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전문적 코칭 지원 필요
- * (예) 엘리트스포츠 선수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의 경우, 대한체육회 등에서 청소년선수의 진로전환·경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중
- **(정책과제)** 웹 콘텐츠 창작자의 경력진단·분석을 통해 진로교육·직업상담 등을 제공하는 진로전환 지원 프로그램 마련*('24년말)
- * 청년층 취업역량강화 모듈 프로그램 內 과거 창작 경험 등 경력진단·분석 과정 신설

□ **청년 제안** 웹 콘텐츠 창작자의 정신건강 진단·관리 지원(문체부)

- **(현황)** 웹 콘텐츠 창작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악성 댓글, 비난성 의견 등에 자주 노출*되어 정신질환 위험 우려

* 웹툰 작가의 77%가 댓글로 작품에 대한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, 약 50%가 자신에 대한 비난을 댓글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('22,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)

- 예술인심리상담센터에서 연 12회 한도로 상담 제공 중이나, 상담시설 부족, 시설현황정보 제공 미비 등으로 활성화 한계

- **(정책과제)** 웹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강화

- 예술인심리상담센터 확충(40 → 47개소) 및 年상담한도(12회) 외 추가상담이 가능한 기준·요건을 명확화

* (現) 센터별로 추가상담이 가능한 기준·요건이 상이하여 추가상담 가능여부가 불분명
→ (改) 추가상담이 가능한 기준·요건을 통일하여 추가상담 예측가능성 제고
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술인심리상담센터 현황 및 센터별 서비스 제공범위 등 정보 신규 제공
- 웹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신건강 자가진단·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 창작분야 특화 심리상담 사례집 발간

□ 웹 콘텐츠 창작자의 행정부담 경감 지원(문체부)

- **(현황)** 웹 콘텐츠 창작자 등 예술인 대상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, 공문서 작성 등 행정부담에 따른 애로 발생

- 특히, 예술인은 프리랜서 비중*이 높아 직접 공문서 작성 등을 하는 등 他분야 대비 행정부담이 높은 측면

* 전업예술인 중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 비중 : 78.2%('21 예술인 실태조사)

- **(정책과제)**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*에서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지원하고, 교육 자료** 및 공문서 작성방법 등 배포('24)

* 한국예술인복지재단(서울) 및 인천·대전·대구·충남·충북·전남·전북·부산·제주 등 문화재단

**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 소개집(책자, 영상 등) 제작·배포

□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 개선(고용부, 문체부, 과기부)

○ (현황) '20년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가입 대상 구체화, 업계 관행 반영 필요 등 개선 요구 지속 제기

-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*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애로**

* 대상요건 : ①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일 것, ②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,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 등이 필요

** 웹툰·웹소설 창작자는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등에서 가입 가능 대상임을 명시

- 또한, 다단계 계약·구두계약 등 예술업계의 계약 관행*으로 인해 웹 콘텐츠 창작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측면

* (다단계 계약) 플랫폼-콘텐츠제작사(CP)-작가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체결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인 고용주 지정을 누구로 할 것인지 문제 발생
(구두계약) 고용보험 요건인 ②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

○ (정책과제) 예술인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

-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*

*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대상에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포함됨을 명시

※ 「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4.上)과 연계하여 크리에이터 고용보험 가입 홍보 확대

- 웹 콘텐츠 창작자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('24.上, 근로복지공단) 및 제도 개선* 추진('24년말)

* (예시) 다단계 계약 시 고용주 지정 대상 명확화, 가입 서류절차 간소화 등

- 정부 공모사업* 참여이력 등을 활용하여 가입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·가입을 촉진하고, 고용보험 홍보영상 제작·배포

*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 등

□ 예술활동증명제도 활성화(문체부)

- **(현황)** 문화예술* 분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대상으로 예술활동준비금, 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 복지 혜택 제공중

* 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(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)

【〈참고〉 예술활동증명 시 신청 가능 혜택】

- ① **(예술활동준비금)** 중위소득 120% 이하 예술인 대상 3백만원 지급(신진예술인은 2백만원)
- ② **(예술인 파견)** 기업·기관과 예술인을 매칭하고, 예술인의 직무 활동비 지원(120~140만원)
- ③ **(산재보험·국민연금)** 산재 보험료 지원(50~90%),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(30~50%)
- ④ **(생활안정자금 융자)** 신용 저리 대출 지원(7백만원 한도)

-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함에도 관련 안내서 등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제도 참여에 한계
- 또한, 예술활동준비금을 연2회(상·하반기)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어 하반기 수혜자들은 상반기에 지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

- **(정책과제)** 예술활동증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추진

- 크리에이터들이 예술활동증명 신청시 참고·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, 구체적 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서 발간·배포(‘24.3분기)

* 한국예술인복지재단,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등 게시, 지역 문화재단 등에 배포

- 예술활동 지원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준비금의 지급 시기를 상반기로 일원화*

* (現) 연 2회(상, 하반기) 각 1만명 지원 → (改) 연 1회(상반기) 2만명 지원

□ 크리에이터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(과기부)

- **(현황)** 크리에이터는 개인 제작 구조상 인력·전문가 구인, 정부지원사업 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큰 측면

* 1인 미디어 인력 채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하는 업무능력을 가진 지원자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69.8%(‘23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, 과기부)

- **(정책과제)** 미디어 관련 종사자 경력관리·조회 기능, 정부지원사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‘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’ 구축(‘24.上)

□ 청년 크리에이터 멘토링 지원(과기부)

- (현황) MCN* 등은 창작자 육성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나 높은 실패가능성 등으로 신규 창작자 육성을 기피하는 경향**

* MCN(Multi Channel Network) : 1인미디어 창작자와 계약을 통해 콘텐츠의 기획·제작·유통, 법률, 마케팅을 종합 지원하는 기획사

** '22년 소득 상위 1%의 크리에이터 수입은 평균 8.5억원, 소득 하위 50%의 평균 수입은 30만원(1인 미디어 창작자(유튜버등) 수입금액 현황, 국세청)

- (정책과제) 신규 크리에이터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MCN 등이 직접 선발·육성하는 도제식 멘토링 지원사업 시범 추진

*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사업(과기부) 內 시범사업 신설

: (現) 창작자 선발 후 사업화·멘토링 등을 위한 외부 사업자 등 연결

→ (改) MCN 등 기관 先선발, 이후 MCN이 필요한 창작자 직접 선발·양성 사업 추가

◇ 시장 왜곡행위 제재 및 가격 규제 개선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

□ 악성 댓글 등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(방통위)

- (현황) 웹 콘텐츠 창작자 대상의 악성 댓글, 악의적 의견 등은 창작자들의 정신건강 피해 및 소비자 선택교란 유발

- 온라인 플랫폼별로 악성 댓글 등의 제재·처리기준이 상이하여, 악성 댓글 처리 및 창작자 보호 한계

- (정책과제) 악성 댓글의 유형, 이용자 제재 방식 등 플랫폼 운영자·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*(‘24년말)

* 사업자 단체(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) 및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마련 추진

□ ‘가짜 뉴스’ 유통 근절방안 마련(방통위)

- (현황) 일부 크리에이터의 경우 영리행위 등 악의적 목적으로 ‘가짜 뉴스’를 유통하여 거짓정보 확산 및 소비자 피해 발생*

* 유투버의 가짜뉴스 전파에 대해 ‘심각한 문제’로 응답한 비율 98.1%(한국언론진흥재단, ‘21)

- 피해를 입은 개인이 특정되는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(정보통신망법), 손해배상청구(민사소송법) 등 제재 가능
- 그러나,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가짜뉴스도 다수 유포* 중

* (예) 최근 ‘태권도의 유래를 중국 학생과 다투는 해돈 래티모어 하버드대 교수’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으나 거짓으로 판명

- (정책과제) 영리·악의적 목적 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‘가짜 뉴스’ 영상 제작 및 유포 근절 방안 마련·발표(‘24년말)

* (예) 가짜뉴스의 정의 마련 및 처리 절차 정립 등

□ 웹툰·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(문체부)

- (현황) 유통질서 확립 및 출판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정가로 판매하는 도서정가제 운영 중

* ‘03.2월 법제화 → ‘14.11월 모든 간행물에 적용하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

- 웹 콘텐츠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웹툰·웹소설에도 적용하여 독자, 작가, 업계 등에서 불만족 제기
- 다회차 구매시 가격 부담(독자), 독자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·마케팅 필요성(작가·업계) 등 이유로 도서정가제 완화 요구 확대

- (정책과제) 웹툰·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추진

- 다만, 창작자 등에게 할인비용을 부담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창작자 보호 장치 마련 병행

*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2조(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) 및 제23조(간행물의 유통질서) 개정안 국회 제출(‘24.6월)

◇ 연관산업 성장지원 및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한 산업 발전기반 마련

□ 청년 제언 웹소설 번역 지원 확대(문체부)

- **(현황)** K-콘텐츠 수출 분야가 드라마·영화에서 웹소설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, 외국어 번역·감수 등 수요 증대*

* 웹소설 창작자의 약 55%가 해외 시장 진출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'번역 지원' 요청(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, '22)

- 그러나, 전문 번역인력 공급 부족, 번역 품질 저하 등으로 해외에서 웹소설의 평가가 절하되는 등 수출 애로

- **(정책과제)** 전문 교육기관*과 연계한 웹소설 번역 교육·실습 과정 신설 및 산-학 연계 실무기회 제공 프로그램 지원('24년)

* 한국문학번역원 또는 국내 통번역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 선정

□ 청년 제언 버추얼 크리에이터* 활성화를 위한 원천기술 R&D 지원(과기부)

* 페이스 캡처, 모션캡처 기술 등을 활용해 방송자의 행동·표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가상의 캐릭터(아바타)로 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

- **(현황)** 버추얼 크리에이터는 사생활 보호 및 익명을 선호하는 청년세대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최근 시장규모 급성장

* 전세계 유튜브 슈퍼챗(후원금) 역대 순위 1~10위 중 7명이 버추얼 크리에이터(플레이보드)

- **(정책과제)** 모션 트래킹, 감정 전달 등 버추얼 크리에이터 미디어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XR 원천기술 R&D* 지원

* 크리에이터의 움직임을 디지털로 표현하는 XR인터페이스 기술개발

□ **청년 제언** 무료 공유저작물 확대 등 저작물 사용 편의 개선(문체부)

- **(현황)** 웹 콘텐츠 창작 분야는 영세 창작자 비중이 높아* 저작물의 출처 확인, 유료 저작권 확보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

* (웹툰) 연소득 3천만원 미만 창작자 비중 38.5%(웹툰작가 실태조사, '23)
(웹소설) 창작자의 연간 총 수입 평균 3,487만원(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, '22)
(크리에이터) 소득 하위 50% 창작자의 연평균 수입 약 30만원(국세청, '22)

- **(정책과제)** 무료 공유저작물 확충 및 공공 저작물 개방 확대

- 이미지, 영상, 음악, 폰트 등 무료 이용 공유저작물을 '27년까지 8백만개 추가 제공

* '12~'23년 약 2,500만개 확보 → '24~'27년 8백만개 추가 확보

- 콘텐츠 개발에 활용가능한 고품질 저작물 제공을 위해 '27년까지 67개 공공기관의 저작물 디지털화 및 디지털 저작물 개방 추진

* 공공기관 디지털 저작물 개방 : ('24) 13개 기관 → ('27) 52개
공공기관 저작물 디지털화·개방 : ('24) 3개 기관 → ('27) 15개

- 민간 저작물을 관리*하는 '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'를 공공·민간 저작물 통합 관리 종합플랫폼으로 확대 개편**('25년)

* 저작권 검색서비스(DB구축), 저작권 이용허락 신청·허가, 법정 이용허락 등

** 공공누리, 공유마당 등 무료 저작물, 공공기관 자체 저작물 등 분산된 권리정보 편입

□ **청년 제언** 웹툰 분야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(문체부)

- **(현황)** 그간 웹툰 관련 행사는 지자체, 온라인 플랫폼 등 주도로 산발적으로 개최되고, 행사 목적도 내국인 관심 제고에 중점

- 웹툰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웹툰의 글로벌 관심을 환기하고, 비즈미팅 등 웹툰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행사 마련 필요

- **(정책과제)** 글로벌 웹툰 어워즈, 비즈 미팅 및 각종 이벤트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 정기 개최 추진

- 부대행사 참석율·관심도 제고 및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웹툰 페스티벌과 웹툰분야 국제 채용행사 연계 개최('25~)

□ **청년 제안** 웹툰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유망시장 조사(문체부)

- **(현황)** 현 웹툰 업계는 5개 권역(日·美·中·동남아·유럽)으로 작품 수출 중으로, 권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수출 시행 중

* (예) 美 - 히어로물(남성향), 日 - 소년만화, 유럽 - 로맨스(여성향) 등

- 그 외 권역은 장르 수요층 등 체계적 정보가 부재하여, 신규 수출시장 신규 시장 개척 애로

- **(정책과제)** 멕시코·인도 등 신규 수출 개척 국가의 웹툰 장르별 수요분석·정보제공 등 지원

* (現) 미국·중국·일본·인도네시아·프랑스·베트남·UAE·태국·러시아 등 9개국

→ (改) 멕시코·인도 등 시장 분석 정보 추가 제공, 신규시장 정보 지속 확대

□ **개인 웹소설 창작자의 해외 컨퍼런스·마켓 참여 지원(문체부)**

- **(현황)** 해외진출을 원하는 개인 웹소설 창작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, 해외시장 관련 정보·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상황

- 콘텐츠 제작사·에이전시에 한해 해외 컨퍼런스·마켓 참여 비용 일부를 지원* 중이고, 대상국가도 독일·영국 등 제한

* 웹소설 등 전자출판 관련 기업·에이전시에겐 홍보부스 임차료, 통역보조 등 지원

- **(정책과제)** 개인 웹소설 창작자의 해외 컨퍼런스·마켓 참가를 지원*하고, 일본·미국 등 지원대상 국가 다변화 검토

* 창작자 참여 세션이 있는 해외 북페어 등 지원 대상에 개인 창작자 포함 및 참여 창작자 대상 부대 프로그램 확충 등

IV. 웨딩·뷰티 서비스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**(현황)** 웨딩·뷰티 서비스는 청년세대의 취·창업과 소비 관심도가 높고, 청년세대 소비성향 등을 반영한 新서비스 창출도 활발

○ 피부·네일미용 등 분야에서 청년 창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, 20~30대 청년층이 결혼 서비스 시장의 주력 소비계층*

* 사업대표자 중 40세 미만 비중('22, %) : (아·미용) 27.2 (피부미용) 43.3 (네일 등) 69.1

** 혼인 연령별 구성비('22, 남성, %) : (20대) 21.7 (30대) 54.6 (40대) 13.2 (50대) 6.5

○ 가치소비·개성 중시 성향을 반영한 새로운 결혼식 모델*이 생겨나고, 그루밍족 등 남성 뷰티 서비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**

* (예) 친환경 소품드레스 활용한 에코웨딩, 펜션에서 파티식으로 진행하는 펜션웨딩 등

** 국내 남성뷰티 시장규모(억원, 유로모니터) : ('20) 10,640 → ('21) 10,751 → ('22) 10,923

□ **(문제점)** 청년세대 고용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나, 자격관리·근거법률 등 산업육성 인프라 조성 미흡

○ **(취·창업 여건)**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이 빠르게 증가*하였으나, 정보·경험 부족 등의 애로가 있고 웨딩 분야 자격관리체계도 부재**

* 피부미용업 40세 미만 대표자 사업장(개) : ('18) 7,520 → ('20) 9,425 → ('22) 13,178

** 웨딩플래너 등 80여개 이상 민간자격이 있으나 국가자격 또는 공인 민간자격은 無

○ **(소비 만족도)** 불투명한 가격정보, 표준약관 부재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여 만족도*가 낮고, 결혼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**

* 30대 소비만족도(점, '21, 소비자원) : (결혼) 68.2 (장례) 73.5 (교육) 76.1 (의료) 76.8

**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(% , '22 사회조사) : (결혼자금 부족) 33.7 (필요성 없음) 17.3 (출산·양육 부담) 11.0 (고용상태 불안정) 10.2 (결혼상대 못만남) 9.7

○ **(제도적 기반)** 청년들의 창업이 활발한 피부·네일 분야 통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, 결혼 서비스업 관련 법률도 부재*

* 현재 결혼중개업 분야에 대해서만 신고제,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, 실태조사 정기실시 등을 포함한 「결혼중개업법」 제정·시행중('19~)

◇ 교육훈련 강화 및 창업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취·창업 여건 개선

□ 뷰티 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 확대(중기부, 고용부)

- **(현황)** 낮은 초기 창업비용·진입장벽으로 청년들의 뷰티업종 창업이 빠르게 증가*하고 있으나, 정보·경험부족 등 애로 발생**

* 피부미용업·기타미용업(네일 등) 40세미만 대표자 사업장(개소, 통계청)

: ('18) 7,520/9,751 → ('20) 9,425/13,196 → ('22) 13,178/16,165

** 창업교육경험(개월, '18, 중소벤처연) : (20대이하) 6.7 (30대) 19.8 (40대) 17.8 (50대) 19.6
폐업률(%,'18, 중소벤처연) : (20대이하) 18.8 (30대) 12.8 (40대) 9.4 (50대) 8.1

- **(정책과제)** 뷰티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강화

-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(마케팅, 인사관리 등)에 이용업(바버샵), 피부미용업, 메이크업 분야 교육과정 신설('24.3분기)

* 현재 소상공인지식배움터(중기부) 내 네일샵, 미용실 업종 교육과정만 운영중

-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등 실습 교육 비용 확대 지원(1회당 최대 지원금액 50→60만원, '24.2분기)

- 34세 이하 청년이 이·미용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%를 신규 지원(연 3회 한도, '24)

□ 뷰티업종 창업정보 제공 확대(중기부)

- **(현황)** 현재 상권정보시스템에서 뷰티업종 등 창업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권별 업소, 매출액 등 1차적 현황정보 중심 제공중

* (업종) 미용실, 피부관리실, 네일샵, 결혼상담서비스업, 예식장업
(제공정보) 동별 업소 개수, 동별 매출액, 유동·직장인구, 소득, 소비수준 등

- **(정책과제)** 피부미용·기타미용업(네일 등) 대상으로 창업 환경을 종합 분석해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 신규 제공('24.3분기)

* (現) 커피, 치킨, 한식, 편의점, 미용실 → (改) + 피부미용업, 기타미용업(네일 등) 등

** 상권정보시스템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개편('24) 후 서비스 신규 제공 예정

□ **청년 제안** 웨딩·뷰티 분야 전문인력 양성 강화(여가부, 고용부, 교육부)

- **(현황)** 웨딩·뷰티 서비스 분야는 다른 직종에 비해 업계 수요 대비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*

* 업종별 미충원율(% 고용부, '23.下) : (전체) 11.4 (돌봄) 5.9 (여행·오락) 4.7 (미용·예식) 16.9

- 또한, 80여개 이상의 결혼 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이 있으나, 국가공인 자격은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인력양성에 한계

- **(정책과제)** 웨딩분야 자격관리체계 마련 및 뷰티 전문인력 양성 강화

-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*하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 추진

* 업계 의견수렴, 실태조사 등 추진

- 뷰티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·기업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·운영, 실습 장비 등을 지원

* 구미대(헤어뷰티디자인과,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), 동의과학대(스마트뷰티케어, 스마트 화장품소재), 명지전문대(뷰티아트과) 등

□ **청년 제안** 뷰티 서비스 디지털화 촉진(고용부, 중기부)

- **(현황)** 가상피팅, 디지털 네일아트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뷰티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저조*

* (예) 고양시 뷰티 서비스 소상공인의 36.1%가 디지털 전환 의도가 있고 53.5%가 비즈니스에 유익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디지털 전환은 14.3%에 불과('23)

- **(정책과제)** 뷰티업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·기기보급 등 지원

- 디지털 네일아트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마련 추진

* 인력·훈련 등 산업계 수요조사, 他분야와의 중복성, 성장가능성 등 종합 분석 선행

- 뷰티업종 소상공인에게 스마트미러, 가상피팅 등 디지털 뷰티기기 보급 지원

- 뷰티 전문 온라인 플랫폼에 뷰티 업종 소상공인의 전문 채널 입점 및 기획전 개최 등 지원

□ 피부미용·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 적용(국세청)

* 간이과세 : 소규모 개인사업자(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)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 하고, 매출액에 일정 비율(1.5~4%)을 곱하여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

- **(현황)** 피부미용·네일 등 분야*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간이과세가 지역·규모별로 제한적 적용

* 사업대표자 중 40세미만 비중(22. % 통계청) : (아미용) 27.2 (피부) 43.3 (네일 등 기타) 69.1

** 부가세법 61조①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서울,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㎡ 이상 피부·기타미용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

- **(정책과제)** 청년의 창업여건 개선을 위해 피부미용 및 기타 미용업(네일 등)에 대해 지역·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('24.3분기)

□ 청년 제안 공유미용실 제도화(복지부)

- **(현황)** 창업·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1개 미용실 내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* 등을 규제샌드박스 통해 허용중

*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 것을 규정

- '22.7월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으나, 이해관계자 이견 등으로 지연

* 공유미용실 제도화 발표('22.7, 경제규제혁신TF) →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입법예고('22.9~10) → 대한미용사회 등 이해관계자 이견 등으로 개정 지연

- **(정책과제)**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「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」을 수정·마련하고 공유미용실 제도화 추진('24년말)

□ 결혼 서비스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포함(중기부)

- **(현황)** 1인 창조기업* 대상으로 사무공간, 교육·멘토링, 세무·회계 등 지원 중이나, 웨딩 등 개인서비스업은 대상 제외**

*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상시근로자 없는 1인 또는 공동사업자(5인 미만)

** 제외업종 : 숙박업, 금융업, 보험·연금업, 부동산업, 스포츠업, 개인서비스업 등

- 웨딩 업종은 소규모 사업장 비중*이 높고, 他분야(의류, 뷰티 등) 연관도가 높아 1인 창조기업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

* '22년 기준으로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의 5인미만 사업장 비중은 89.4%

- **(정책과제)**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개인서비스업(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) 신규 추가(「1인창조기업법」 시행령 개정, '24.3분기)

◇ 공정거래 확립 및 공공예식장 활성화 통한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 조성

□ 청년 제안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 강화(공정위, 기재부)

- (현황) 결혼 상품 구성,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과도한 추가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합리적 가격비교 한계
 - *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8.0%에 불과하며, 소비자의 44.6%가 스튜디오, 드레스 등 업체 비용에 대한 정보부족 응답('20, 소비자원)
- (정책과제) 결혼 관련 품목·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강화
 -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('참가격')에 결혼 관련 품목·서비스 가격 현황 신규 제공('25)
 -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, 선택 다양성, 신뢰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공개('25)
 - * 소비자시장평가지표(한국소비자원, 2년주기) 평가대상 업종에 결혼 서비스 신규 추가
 -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, 항목, 방법 등을 규정·의무화하는 '가격표시제' 도입방안 마련('24년말)

□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마련(공정위)

- (현황)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분야에서 불합리한 면책조항,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다수 발생*
 - * '21~'23.4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구제 신청(361건) 중 계약 관련이 93.6%(338건) 차지
 - 현재 국내외 결혼중개업, 예식장업 분야는 표준약관 旣마련
- (정책과제)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 추진
 - * 결혼준비대행업 현황 및 소비자피해 등 실태조사 실시('24) → 사업자 단체·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 제정('25)

□ 청년 제안 결혼 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(공정위)

- (현황)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 발생 증가 추세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필요
 - * 결혼 서비스 연평균 피해구제 접수(건) : ('16~'19) 573.5 → ('20~'23) 778.5(+35.7%)
- (정책과제) 청년세대들이 결혼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(숏폼·카드뉴스 등) 제작·보급('24.上)
 - * (예) 계약시 유의사항, 자주 발생하는 피해사례, 사전 체크리스트 등

□ **청년 제안** 공공예식장 활성화(문체부, 기재부, 행안부, 여가부 등)

- **(현황)**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중이나, 특색 있는 장소* 및 예약 편의 개선 등에 대한 요구 확대

* 청년 선호 공공예식장(서울시 '23) : 한옥(52.8%) > 공원(25.7%) > 미술관(17.2%) > 박물관(3.2%)

- **(정책과제)** 청년세대 선호가 높은 공공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고, 편의성·만족도 제고를 위한 통합 예약 서비스·모델 개발 등 추진

- 국립미술관·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

* 예식공간, 이용요금, 이용절차, 개방시기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('24.上)

< 주요 신규 개방 시설 >

개방장소	소재지	개방장소	소재지
국립중앙박물관	서울 용산	국립중앙도서관	서울 서초
국립민속박물관	서울 종로	국립현대미술관	경기 과천
관세인재개발원	충남 천안	중앙교육연수원	대구 동구

- 한전,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을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방(4개, '24.1월~)

* 신규 개방 시설 : 한전 아트센터(서울 서초), 한전 남서울본부(서울 영등포), LH 경기남부분부(경기 성남), LH 본사 남강홀(경남 진주)

- 공공예식장 만족도, 이용률 등을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*

* (지자체) 합동평가에 보유시설 개방도·이용률·만족도 관련 평가지표 신설 추진
(공공기관) 상생·협력 및 지역발전(공공기관 보유시설 이용·편의제공 노력과 지원) 평가시 반영

-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, 가격,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·예약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 제공('24년말)

* 공유누리 플랫폼(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) 연계·활용

- 개성 있는 결혼식, 친환경 결혼식 등 청년세대 선호에 맞는 공공예식장 모델 개발·보급('24년말)

◇ 법·제도 정비 및 방한관광 활성화 등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

□ 「결혼 서비스업 진흥·발전에 관한 법률^(가칭)」 제정(여가부, 기재부)

- (현황) 결혼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어 소비자보호, 산업 발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계
 - 결혼중개업 분야에 대해서만 신고제, 보증보험 가입 의무,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근거법률* 既마련·시행중('19~)
- *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: 신고제·등록제 운영,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, 결혼중개 실태조사 정기 실시, 계약서 작성방법, 위반시 영업정지·벌금 등을 규정
- (정책과제) 결혼 서비스 산업 육성·지원 등을 위한 근거법률 마련
 - *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('24.上) → 법률 제정(안) 마련('24.下)

□ 결혼 서비스 분야 정기 실태조사 실시(여가부)

- (현황) 결혼 서비스에 대한 종합·정기적 실태조사가 부재하여 업계 현황, 수요자 인식변화 등 정보 수집 및 정책 활용에 한계
 - * 현재 결혼중개업만 여가부가 운영실태,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
- (정책과제) 결혼 서비스 산업* 현황(시장규모, 종사자 등), 서비스 이용 비용,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
 - * 웨딩플래너, 드레스 임대, 사진촬영, 예식장 대여 등

□ 청년 제안 친환경 예식장 인증제도 도입(환경부)

- (현황) 가치·의미를 중시하는 청년세대의 소비성향*에 따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결혼식 수요 증가
 - * MZ세대의 64.5%는 ESG 실천기업의 제품이 더 비싸도 구매 의사 있다고 응답('22, 상공회의소)
 - ** (예) 화분 장식,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, 생분해성 섬유 드레스, 다회용 그릇 활용 등
- (정책과제) 친환경 결혼식 활성화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친환경 예식장 인증제도 도입
 - * 환경표지대상제품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: (現) 호텔·세탁·카페 → + (改) 예식장 추가

□ **뷰티 서비스 통계분류 개선(고용부, 통계청)**

- **(현황)** 청년층 취업비중이 높은 메이크업, 네일업 등의 통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현황 파악,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한계*

* 표준직업분류 및 고용직업분류 : 네일미용업을 관련도가 낮은 피부체형관리업으로 분류
한국표준산업분류 : 메이크업(화장·분장 미용업)을 피부미용업으로 통합하여 분류

- **(정책과제)** 표준직업분류·고용직업분류에 네일관리사를 세분류로 신설, 표준산업분류 중 피부미용업 분야 세분화(메이크업 별도 분류 등) 검토

<표준직업분류 개선 주요내용>

< 현 행 >			< 개 선 >	
세분류	세세분류		세분류	세세분류
이용사	이용사		이용사	이용사
미용사	미용사		미용사	미용사
피부 및 체형 관리사	피부관리사	→	피부 및 체형 관리사	피부관리사
	체형관리사			체형관리사
	손톱관리사			목욕관리사
	목욕관리사			그 외 피부·체형 종사원
그 외 피부·체형 종사원			네일관리사	네일관리사

□ **청년 제안 K-뷰티 관광 활성화(복지부, 문체부)**

- **(현황)** K-뷰티에 대한 방한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, 체험·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K-뷰티 홍보 강화 필요

* 방한 주요 20개국 K-컬처 언급량(만건 '20~'23) : (K팝) 3,682 (K-푸드) 1,418 (K-뷰티) 997

- **(정책과제)** 방한 외국인 대상으로 K-뷰티 체험·홍보 강화

- 현장 뷰티체험, 원데이 클래스, 콘텐츠 제작 공간 제공 등을 하는 K-뷰티 체험·홍보관(뷰티플레이) 1개소 추가 운영('24)
- 방한 관광객이 K-뷰티, 헤어, 패션 등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·체험할 수 있는 '코리아 뷰티 페스티벌' 개최('24.6월)

V. 주요과제 추진일정

분야	정책 과제	부처	추진시기
웹 콘텐츠 창작	· 웹툰 표준계약서 고도화	문체부	'24.4월
	· 웹툰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 작성·배포	문체부	'24.3Q
	· 웹툰·웹소설 작가 컨설팅 지원 확대	문체부	연중
	· 국민내일배움카드 창작 실무자 훈련과정 편성 가이드라인 마련	고용부	'24.2Q
	· 웹소설 표준계약서 마련·보급	문체부	'24.6월
	· 크리에이터 외주계약 등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	과기부	'24.3Q
	· 콘텐츠 전문가 DB 구축, 전문가-창작자 매칭	문체부	'25.1Q
	· 신진 웹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창작소재 발굴 지원(전문가 특강 등)	문체부	'25.1Q
	· 웹 콘텐츠 창작자의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마련	고용부	'24.4Q
	· 웹 콘텐츠 창작자의 정신건강 진단·관리 지원	문체부	'24.3월
	·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	문체부	연중
	·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 개선	고용부	'24.4Q
	·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(가이드라인) 개정	문체부 고용부	'24.4Q
	· 예술활동증명 사례집 발간	문체부	'24.3Q
	· 크리에이터 경력관리 플랫폼(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) 구축	과기부	'24.2Q
	· 청년 크리에이터 멘토링 지원	과기부	'24.4Q
	· 악성 댓글 등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	방통위	'24.4Q
	· 웹툰·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(정부입법 발의)	문체부	'24.6월
	·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확대 개편	문체부	'25~
	· 전문 교육기관 연계 웹소설 번역 교육·실습과정 신설	문체부	'24.2Q
	· 버추얼 크리에이터 활성화를 위한 원천기술 R&D 지원	과기부	연중
	· 웹툰 분야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	문체부	'25~
	· 웹툰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유망시장 조사	문체부	'24.3Q
	· 웹소설 창작자의 해외 컨퍼런스·마켓 참여 지원	문체부	'25~

분야	정책 과제	부처	추진시기
웨딩 · 뷰티	· 소상공인 온라인 창업교육 내 뷰티 교육과정 신설	중기부	‘24.3Q
	· 소상공인 업종별 실습교육 비용 확대 지원	중기부	‘24.2Q
	·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	고용부	‘24~
	· 피부·기타미용업 창업기상도 서비스 신규 제공	중기부	‘24.3Q
	· 결혼 서비스 분야 자격관리체계 마련	여가부	‘25.2Q
	· 뷰티 분야 전문대학·기업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장비지원	교육부	연중
	· 디지털 네일아트 NCS 마련	고용부	‘24.3Q
	· 뷰티 업종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뷰티기기 보급 지원	중기부	‘24.2Q
	· 뷰티 전문 온라인 플랫폼에 소상공인 입점 등 지원	중기부	‘24.1Q
	· 피부미용업·기타미용업 간이과세 적용	국세청	‘24.3Q
	· 공유미용실 제도화	복지부	‘24.4Q
	· 1인 창조기업 대상에 개인서비스업 신규 추가	중기부	‘24.3Q
	· ‘참가격’ 플랫폼에 결혼 관련 품목·서비스 가격 게시	공정위 등	‘25~
	· 결혼 서비스 체감가격, 선택 다양성 등 정기 조사·공개	공정위	‘25~
	·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방안 마련	기재부	‘24.4Q
	·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마련 실태조사 실시	공정위	‘24.3Q
	· 결혼 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	공정위	‘24.2Q
	· 예식공간 신규개방시설(미술관 등)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	문체부 등	‘24.2Q
	· 지자체 합동평가에 공공예식장 관련 평가지표 신설 추진	여가부 행안부	‘24.3Q
	·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 제공	행안부	‘24.4Q
	· 청년세대 선호에 맞는 공공예식장 모델 개발·보급	여가부	‘24.4Q
	· 「결혼 서비스업 진흥·발전에 관한 법률 ^(가칭) 」 제정(안) 마련	여가부 기재부	‘24.4Q
	· 결혼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정기 실시	여가부	‘26~
	· 예식장업 대상 친환경 인증제도 도입	환경부	‘26~
	· 표준직업분류·고용직업분류에 네일관리사 세분류 신설	통계청 고용부	‘24.3Q
	· K-뷰티 체험·홍보관(뷰티플레이) 1개소 추가 운영	복지부	‘24~
	·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개최	문체부	‘24.6월